

Chapter 8. 갤럭시로 보는 세상



갤럭시로 보는 세상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

색감, 분위기 그리고 감성.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 하세요?”

처음 만나는 수강생들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다.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나름의 방안이자 스마트폰 클래스보다는 ‘사진’ 클래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

지금은 그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즐긴다. 그저 볼 때 기분 좋은 사진, 찍었던 순간의 감동이 다시 떠오르는 사진, 한 편의 시 같은 사진 등. 전부 다르지만 모두 정답이다.

좋은 사진의 조건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색’ 이다. 많은 사람들이 쪽빛 바다, 노랑 분홍 꽃송이, 붉게 타는 노을을 더 진하고 선명하게 찍고 싶어한다. 모두가 나와 가족, 친구의 얼굴이 밝고 화사하게 보이길 원한다.

본인의 공간을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찍고 싶은 요가 학원 원장, SNS 사진 작가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도 이런 감성을 닮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아름다운 색은 사람은 매료시킨다. 마음의 빗장을 푸는 힘이 있다.



두 장의 사진에서 다른 것은 색 하나뿐이다. 하지만 보정을 거친 두 번째 사진을 먼저 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촬영 시간을 저녁 즈음으로 유추했다. 원본 사진을 나중에 본 어느 수강생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앞으로 작가들을 어떻게 믿죠?”

색은 사진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공간, 음식이 더 근사해 보이고 인물의 감정이 증폭 또는 완화된다. 작가가 가진 일관된 색 표현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정서가 된다. 이 말은 색만 잘 활용해도 사진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남은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색을 가지고 놀아보는 방법. 간단한 기능부터 전문가급 테크닉까지 네 가지를 소개한다.



1. 필터 효과

기본 카메라에서 색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쉬운 촬영, 빠른 공유를 목적으로 설계된 스마트폰 카메라가 밝기, 색감을 환경에 맞춰 설정하기 때문. 카페와 식당의 노란 조명 아래서 찍은 인물의 피부가 원래 색에 가깝게 촬영되는 이유다.



필터 선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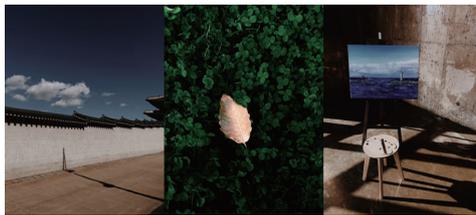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기본 카메라 앱에 내장된 필터 효과를 사용해 보자. 촬영 화면 우측 상단의 필터 아이콘을 눌러 화면 아래에 표시된 작은 이미지들을 터치하거나 쓸어 넘기면 그에 맞춰 촬영 화면의 색감이 바뀐다. 마음에 드는 필터를 고르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끝. 서로 다른 분위기의 사진 열 장을 찍는데 십 초가 채 걸리지 않을 만큼 빠르다. 하단의 조절 막대를 움직여 필터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만약 마음에 쏙 드는 색감이 없다면 화면 왼쪽의 더하기(+) 버튼을 눌러 보자. 갤럭시 스토어에 더 많은 필터가 준비돼 있다.

2. 촬영/보정 앱

더욱 다양한 색감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전용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카메라 앱이 출시될 만큼 그 수가 방대하고, 유행에 맞춰 빠르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장점. 최근에는 단순한 색감 변경을 넘어 얼굴형과 이목구비, 피부 등의 인물 보정, 피사체 합성까지 영역이 확장됐다. 아래는 대표적인 촬영/보정 앱 4종이다.

1. VSCO



아날로그/레트로 스타일의 차분한 색 표현이 특징인 사진 보정 앱. 편집한 사진과 제작한 필터를 공유하는 내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2. SNOW



셀피, 인물 보정에 특화된 앱. 피부 보정과 눈코입 확대, 다리 길이 보정 기능으로 유명하지만 트렌드를 반영한 감성 필터도 꾸준히 업데이트 된다. SNS 인플루언서 스타일의 사진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3. FOODIE



음식 사진을 더 맛있어 보이게 찍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특유의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이 인기를 끌었다. 이에 맞춰 계절, 여행, 필름 스타일 등 필터 종류가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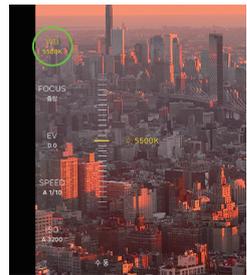
4. PIC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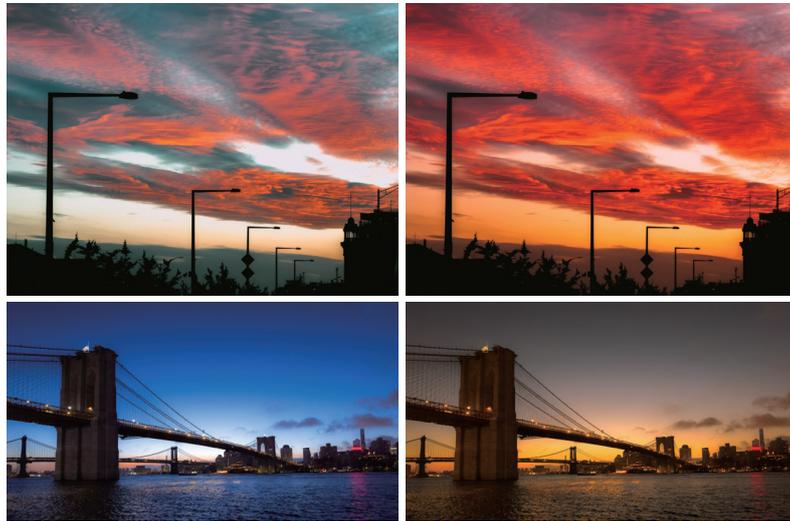
사진 속 하늘 영역을 인식해 몽게구름, 화창한 오후, 별 쏟아지는 밤, 비 갠 뒤 무지개, 휴양지 석양 등 극적인 장면을 합성할 수 있다. 맘 먹고 떠난 휴가지의 날씨가 아쉽다면 이 앱이 제격이다.

3. 프로 모드

매일 베란다에서 찍은 노을 연작을 보여 주며 도무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담기지 않는다는 수강생이 있었다. 이 역시 카메라가 붉게 물든 풍경을 왜곡된 조명으로 인식한 탓이다. 이럴 때 필터를 사용해도 좋지만 촬영 단계에서 색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프로 모드의 WB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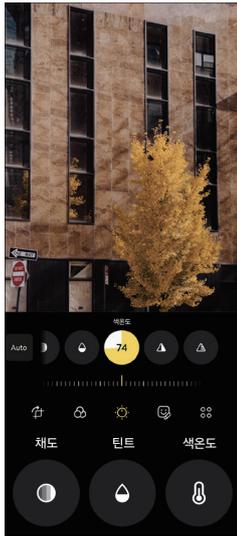


↑ WB 설정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촬영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 [프로] 아이콘을 터치하면 프로 모드가 실행된다. 셔터 속도, ISO 감도 등 전문가급 수동 촬영을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 중 WB 메뉴로 사진의 색온도를 바꿀 수 있다. K(켈빈)값으로 표기된 설정 값을 낮추면 파랗고 차가운 느낌, 높은 값에서는 노랑고 따뜻한 분위기로 색감이 변한다. 노을은 WB 값을 높여 더 화려하게, 바다/하늘은 WB 값을 낮춰 시원하게 연출해 보자.

4. 이미지 보정

이미지 편집은 색을 조절하는 가장 섬세한 방법이다. 언제든 원본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것도 장점. 갤러리 화면 하단의 연필 아이콘을 눌러 편집기를 실행한 뒤 원형 다이얼로 표시된 조절 메뉴를 선택한다. 왼쪽 세부 메뉴 중 색온도, 틴트가 색 보정에 사용된다. 색온도 옵션은 프로 모드의 WB와 동일하다. 틴트 옵션은 색온도와 다른 느낌으로 사진의 분위기를 바꾼다. 설정값을 낮추면 녹색이, 높이면 붉은색이 도드라지는 식. 파란 하늘을 촬영한 사진의 틴트 값을 조절하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청록색 하늘을 만들 수 있다. 색온도/틴트 둘의 조합에 따라 사진의 색감이 결정된다.



편집기의 색 보정 메뉴



↑ 색온도/틴트 조합에 따라 사진의 색감이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채도] 옵션을 조절해 색을 선명하게 또는 부드럽게 조절해서 색보정을 마치자. 현장에서 이 과정을 지켜 본 수강생들은 두 가지를 근거로 자신감을 얻는다. 첫 번째는 색을 가지고 노는 것이 이토록 쉽다는 발견, 두 번째는 작가의 사진도 원본은 별 볼 것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 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

